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1)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처럼 강한 힘을 뿜어내며 무릎 끌어당기고 있었다. 무니는 의식을 잃어 가면서도 자신이 잡고 있던 손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빛의 끝은 어디일까. 도대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저절로 감긴 눈동자 안은 그 빛이 만들어내는 색색의 꽃들로 인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꼭 부여잡았던 정체 모를 손과도 결국 멀어져갔다. 한 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문이 저 뒤에서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무니는 정신을 잃었다. 광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의 몸은 작은 모래알처럼 흩날리며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누워있었던 거지?”

긴 혹은 짧은 잠에서 깨어난 무니가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금빛인 이곳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 시간을 따라 흘러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다. 몇 시간, 며칠을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장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느낀 순간 무니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무니는 별떡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하늘과 땅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지만 역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자신이 누워있던 곳의 땅을 만져보았다. 금빛의 그것은 부드러운 모래 같은 감촉이었다. 다음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려 애썼다. 언젠가의 바다 냄새 같은 걸 맡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어떠한 향기나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도대체 내가 이런 곳엔 어떻게 오게 됐지?”

무니는 기억을 되짚었다. 그들 일행은 의도치 않게 차크라발라에 머물게 되면서 처음으로 살인 사건을 접했고, 큰 두려움을 느꼈었다. ‘거기다 난다는 또 친구를 잃어서 슬퍼했었지...’ 무니는 문득 난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아니, 이곳의 지금이 그곳의 지금과 같은 순간이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칼을 소지하고 무니는 홀로 떨어져 창고에 갇혀있어야만 했었다. 다행히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갇힌다’는 공포는 크지 않았다. 다만 마을의 사정을 그때그때 알 수 없어 조금 답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난 데비의 옷에 묻은 피 때문에, 마을의 사정이 궁금해졌어. 그래서 검 조각과 아무나검을 챙겨서 그곳을 몰래 빠져나왔었지. 아무에게도 들키



삽화 · 김홍인

지 않고 말아야.”

사막에서 데비에게 건네받은 마지막 검 조각은 사 람의 몸을 투명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무니는 그걸 손에 꼭 쥔 채, 가장 먼저 죽은 수아나의 집에 들렀었다. ‘그 수아나의 엄마라는 아줌마가 이상했 어. 수아나가 아니라 그 오빠라는 사람의 옷을 태우고 있었거든.’ 무니는 수아나의 집에서 본 장면의 의 구실을 가지고, 데비가 수아나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그 동굴까지 들어갔었다. 이번에도 무니는 종이버터 를 쟁겨오지 못하는 바람에 어두컴컴한 그 길을 홀 로 걸어가야만 했다. 조심조심 발발을 주의해서 걸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게 뭐였지?’ 무니의 기억은 그 시점부 터 희미했다.

“그게 뭐였지? 뭐였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는 거야?”

무니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래도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지 금, 기억의 마지막 장면마저 잘 생각나지 않고 있었 다. “도대체 여긴 어디냐고!” 무니는 바닥을 주먹으 로 내려쳤다. 주먹이 일으킨 바람 때문에 부드러운 모래들이 그의 얼굴까지 튀어 올라왔다. “앗! 이젠 또 뭐야!” 무니는 자신의 얼굴에 달라붙은 모래들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런데 모래의 질감에서 떠오르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얼른 모래를 손으로 퍼 올려 만져보기 시작했다. 분명 최근에 이런 감촉의 가루를 만져봤던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잔뜩 찌푸리고 있던 무니의 양미간이 스르르 풀어졌다.

“그래! 바로 설탕이었어. 내가 거기서 설탕 자루를 발견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데, 칸타카 소리와 비슷 한 풀피리 소리가 나지.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 어갔고, 그러다가...”

어두운 동굴 안에서 또 발을 헛디뎠던 것이다. 그 때 분명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뒤라고 말을 걸어왔었다. 무니의 기억은 또 거기서 막혔다.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여기서 떨어 지기 전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이다. 또 다시 미간 을 찌푸리고 집중해 봤지만, 이번엔 정말 어떤 실마 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을까?”

무니는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두려워졌다. 늘 현실 같지 않은 나 날들의 연속이긴 했다. 매일매일이 달랐으며 무니는 그 다른 날들 만큼 변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달 랐다. 시간은 무니가 기억을 잃은 그 순간에서 멈춘 듯 했고,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선 어떤 변 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무니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이어서 좋으니,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살랑거리는 바람이 무니의 뺨에 닿았다. 공기마저 없는 것처럼 정적이던 공간에 변화가 느껴진 것이다. 무니는 다시 몸을 일으켜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손끝을 간질이듯 건드리고는 사라졌다. 뺨에 닿았던 바람보다는 더 분명한 느낌이었다. 무니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풍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 다. 숨 막힐 정도로 똑같은 광경이었다. 여전히 아득 히 먼 지평선과는 한 뼘도 가까워지지 못했다. 지친 무니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바람이 닿는 느낌이 걸을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있어 다행이 었다. 불어오던 바람마저 멈춘다면 무니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의미였다. 무니는 계속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 다. 그 회오리바람이 어찌든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 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무니는 걸음 을 멈췄다. 그 순간, “왜 저러지?”라는 말을 내뱉을 사이도 없이 바람은 그를 덮치고 말았다.

바람이 순식간에 무릎을 데려다놓은 곳은 암흑 속이었다. 차크라발라의 동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 을 만큼 짙은 어둠이었다.

“아까는 눈 뜨기 힘들 정도로 환하더니, 지금 이젠 또 뭐야?”

게다가 이제 바람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불길한 예감까지 들렸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무니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어깨를 감싸 쥐었다. 두렵고 외로웠 다. 눈물마저 날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순간, 또 바람이 느껴졌다. 무니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 는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거대한 장막 같은 어둠이 바람에 흔들리듯 팔락이고 있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이 펼쳐질 때 마다 금빛 먼지들이 그 사이로 날아 들어왔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장면이었다. 무니는 낮을 놓고 그 먼지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 먼지들은 암흑 속에서 빛의 흐름을 만들어 내더니 거대한 띠를 형성했다. 바람과 그로 인한 빛 먼지 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무니는 눈만 깜박일 수 있을 뿐이었다. 점차 머리 위가 밝아지고 있 었다. 어둠이 걷히더니 그 공간에 하늘이 생겨난 것 이다.

하늘이 만들어졌어도 먼지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 윽고 그곳을 가득 채운 먼지들은 결국 아래로 떨어 지기 시작했다. 고운 금빛의 먼지들이 하늘의 빛이 아직 닿지 않아 어두운 저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러 자 바닥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땅이야. 땅이 만들어졌어.” 자신의 발아래를 내려다 본 무니가 감탄하듯 말했다.

땅과 하늘은 풀기 힘들 정도로 견고해져갔다. 결 국 낙하하던 먼지들은 땅에 부딪혀 다시 대기로 솟아올랐지만 하늘에도 부딪혀 공중을 맴돌았다. 먼지 들이 회오리처럼 엉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대한 구름 덩어리는 장대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졌 다. 무니는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간의 갈증을 채웠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이윽 고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갈증을 다 채운 무니 앞에 나타난 건 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바다였다. 무니는 이제야 이 경 이로운 장면들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금 벌어지 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였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미 사라지 고 없었다. 무니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까닭을 알 수 는 없지만 그랬다. 기쁨이 한껏 차올랐다가 슬픔이 온 마음을 채우기도 했다. 무니는 자신의 심장에 손 을 올린 채 움직이는 마음을 가만히 아무만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솟아오르던 금빛 먼지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더니, 끊임없이 불어오던 미풍도 잦아들 었다. 신세계엔 적당 만이 감되고 있었다. 그때 어디 선가 물결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도 온 우 주를 진동시킬 만큼 커다랗게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눈이 부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 로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무엇인가 떠내려 오 는 모습이 보였다.

불자 정보
860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전수전안관세움, 신중탱화, 후불탱화, 소불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온천동 시내중심가
• 평수 80평
•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목판 들어오시면 됨
• 즉시법회가능
010-2428-5035

사찰 터 (금) 안내
• 위치: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455번지
• 전: 464평
• 물 청정하고 전기.도로포장 양호함
• 대출: 7,500(칠천오백)안고 총괄전만원
• 콘테이너 2개있음, 사정상 급양도
010-8890-6869

포교원(금) 안내
• 위치: 부산 서구 충무동 5층건물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삼성단 (집성, 독성, 산신, 용왕) 미분양소불 300불
• 종무소, 주지실, 전전실, 창고, 주방, 해우소
• 평수: 8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최신, 최고시설완비
• 시설비 5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69-6799

사찰 (금) 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내서면 고곡 2리 279번지
• 평수, 대지: 91평
• 법당(인법당) 겸 요사채 총 30평(심야전기)
• 삼성각 5평 용왕당
• 가액: 8천 5백만원(가격절충)
010-6508-1365

토굴 안내
• 지리산 청학동 겨울 요양지 공부터로 강추
• 분체 3칸, 사랑채 4칸
• 등기상 약 150평
• 가액: 8천 5백만원
• (주인직접) 중개인 사절
010-2029-2932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고령IC에서 3분거리 대구에서 30분거리
• 비로자나 동불
• 141평
• 요사채 넓고 뒤에 산이 있음
• 뒷마당 넓음, 현재 법회중
• 가액: 6800만원
010-6294-0060

사찰 안내
• 위치: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 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 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여, 엘리베이터
• 가액: 3억 8천만원 양도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사찰(금) 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가격: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금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 월 1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연락처 : 032)519-1108